

서울여성회는...

삶터와 일터의 주인인 생활인 여성들의 자기 성장,
모두가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 일상으로부터의 평화실현 및 폭력과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여성 공동체입니다.

*서울여성회의 첫 번째 꿈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더 익숙한 여성들이 서울여성회를 통해 나를 돌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여성회의 두 번째 꿈은 각자가 가졌던 꿈들이 모여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여성회의 세 번째 꿈은 회원의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같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여성회는 이렇게 살아요!

문화·기획 사업 • 서울여성문화축제 • 엄마와 딸이 함께 떠나는 공감여행 • 한달에 한번, 문화기획행사
회원 사업 • 즐겁고 다양한 회원모임 • 추억과 감동을 나누는 회원의날, 송년회 • 정기소식지 '여울' 발송
교육·강연 사업 • 서울여성아카데미 • 데굴데굴 도토리교실, 도토리캠프 • 청소년교실
정책·연구 사업 • 서울시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감시 • 정책의제사업단
기타 : 우리텃밭 영등포 어린이 놀이터 베품시장



서울여성회

회원가입 및 문의 전화 02-715-621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115-26 4층
카페 cafe.naver.com/seoulwomen
이메일 seoulwomen@naver.com
CMS 및 후원계좌 1005-101-327910 우리은행

청년건대 민주동문회

프란출판사

전화 3141-1874

바다마을

30년 전통, 깊고 상성한 바다의 맛을 담은 것갈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42-1호
www.badamaeul.com 전화 033-682-2528

그날 우리는

육회와 김치찌개가 맛있는 집!!
혜화역 4번출구, 혜화동 로터리 방향 763-4697

자연인한의의원

마포구 서교동 354-22 전화 717-8386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행복한 경희한의의원

용산구 이촌2동 203-60 전화 719-7776

연세美치과

노원구 월계동 435-9 전화 913-2275

전교조 남부지회 초등지회

개미용달

전화 011-715-5072

코아베이커리

아빠의 정성으로 구운 빵!!
성북구 길음동 540-2 코아마트 內

홍희정 프로헤어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
경북광역시 2번 출구 전화 736-7057

서울여성회 추진위원

강미선 강신중 고이영란 김도희 김명화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민선 김성실 김유리 김유화 김정미 김현규
김황경산 김황수진 김희준 노연희 박경아 박영선 박주희 박지아 박지연 서근영 성옥순 손정나 심미숙
우영배 육은숙 윤정원 이경희 이나래 이미금 이보라 이수연 이승애 이정미 이지운 이태리 이하나 전영규
전이은지 전준호 정광배 정다워 정은주 정승운 정혜주 조민욱 조선희 차인숙 채가숙 최승기 추국화 한은미
한혜선 한혜원 홍순례

기획단

- 총기획: 김황수진
- 부스 기획: 이경희 윤미영 조이다혜 이하나 이민송
- 공연 기획: 김지연 정효 박지영
- 홍보: 허정문채
- 홍보물 디자인: 김미영 김황수진
- 사회자: 이도화 황금미영
- 촬영: 이명희 윤성희

3회 서울여성문화축제 2009. 07. 04. SAT.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김여사와 미쓰리의

치국 평화

여성,
정치를
말하다



전시마당

12:00~19:00

김여사, 미쓰리 정치를 풍(弄)하다

여성과 정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

이야기 1 : 정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 Yes or No? 테스트 -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
- 풍선터트리기 - 내 안의 고정관념을 찢아!

이야기 2 : 일상 생활 속 정치이야기

- 여성의 목소리로 바뀌은 세상 ; 개선사례 전시
- 우리가 만드는 女行! ; 서울지도 만들기
- 서울시장에게 엽서쓰기

이야기 3 : 역사 속 여성정치 인물 코스프레 & 전시

원시부족장 / 선덕여왕 / 구즈 / 강주룡 / 헬렌켈러 /
일본군 위안부 / 나혜석 / 케테 콜비츠 / 촛불소녀

여울마당

12:00~19:00

- 면생리대 만들기
- 비즈공예
- 페이스페인팅
-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건립기금 마련 부스
- 우리텃밭 부스 ; 친환경 먹거리 체험,
여성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기금모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있는 증언,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이분들의 용기있는 고백을 희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녀들이 우리 곁에서 모두 떠나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 명예와 인권을 위한
그리고 후세들을 위한 교훈을 남기기 위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기금마련에
함께 합니다.

전쟁과 여성인권을 위한 박물관
<http://www.whrmuseum.com>

배운여자들, 정치를 탐(探)하다

평범한 여성들이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정치는 시작되는 것. 엄마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비혼 여성으로, 주부로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고대 아크로폴리스를 재현한 무대에서
접시를 깨는 왁자글한 수다로 여성이 행복한 세상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 여성 정치인과의 대화 ; 이수정 서울시의원
- 천만상상 아크로폴리스 자유발언대, 세상을 바꾸는 여성 수다

우리텃밭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우리텃밭'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도시와 농촌 상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텃밭 부스에서는 토종씨앗지킴이 모집과
여성농민회 회원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직거래장터를 진행합니다.

직거래 물품 : 서리태콩, 찰보리쌀, 고사리,
보라색 양파, 별마늘, 고추장, 창국장 가루,
미숫가루, 딸기잼, 한라봉잼

만담의 광장

15:30~17:00

노는여자들, 정치를 락(樂, Rock)하다

여성 문화예술인의 바라이어터한 공연난장!! 문화적으로 정치를 이야기한다!

- I'm / CatsPot / We-Band / 백장미 / A-Hopper
- Chanson Troubadours / 반짝반짝 빛나는 / 아마대금
- Mad Fret (매드프렛) / The M:un (더 문)

공연난장

17:00~18:30

여성과 정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고정관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통념을 깨자! ●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깨어나, 자신의 일상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통쾌한 한 판 놀이마당, “김여사와 미

쓰리의 치국평천하”



김여사 : “집에서 솔뚜껑 운전이나 할 것이지!” 라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거리로 나선 우리의 김여사!

미쓰리 : 커피 심부름, 카피 심부름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그녀



여성에 대한 부정적 통념으로 이미지화된 김여사와 미쓰리, 두 캐릭터가 ‘정치’에 대해, 사회에 대해 생각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라는 말처럼 여성의 일상을 통해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축제를 통해 정치를 즐기는 시간! ● 집에서 솔뚜껑 운전만 하며 살기엔 너무 아까운 그녀들의 女行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서울여성문화축제 는 서울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활인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과 가까운 주제로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삶 속에 묻혀 있는 여성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며, 성평등한 서울에 대한 변화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입니다. 또한 문화 자본주의에 소외되어 있는 여성문화예술인을 발굴하여 서울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7.06.05 1회 서울여성문화축제
“상상STOP, 언니가 간대!” (한국관광공사 T2마당)

●2008.09.20 2회 서울여성문화축제
“소소한 일상의 안전스토리” (마로니에공원)



●2009.07.04 3회 서울여성문화축제
“김여사와 미쓰리의 치국평천하” (마로니에공원)

여성과 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여성이 만드는.....새로운 정치

엄담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이힐,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 여성들을 일상의 영역에서 맴돌게 하는 삶의 무게. 삼종지도를 강요하던 유교 사회의 악습은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바깥일이 라는 공사 영역을 분리시켰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도 다르지 않아서 여성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일반 남성에 비해 100년 이상 늦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며 '사람의 삶은 정치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성의 인간으로서 삶은 완성을 만들어 가는 정치로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으며 여전히 가고 있는 길인 것이다.



정치는 나의 일상과 관련 없는 정치권의 이야기?

고무신 투표, 돈봉투 투표, 그들만의 정치. 해방과 함께 맞이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현실은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권력자들의 거수기 노릇으로 제한되어 왔다. 독재 권력과 싸우며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노력은 80년대를 넘어 2000년대 광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스스로의 정치적 권리를 배워나가고 있다.



여성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

여성들은 사적영역에 가만히 머무르는 것 대신, 자신의 일상을 넘어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실천을 꾸준히 벌여왔다. 남성 중심적인 정치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생활 현장에서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에 저항하며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왔다. 일상에서부터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는 민주주의. 여성이 밖으로 던지는 한 걸음으로부터 새로운 정치는 시작된다.

전시 해설

이야기 하나. 내 머릿속의 고정 관념 / 내 안의 고정관념을 쫓아!
오랜 시간 동안 내 머릿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여성과 정치에 대한 고정 관념, 무엇이 있을까? 공원 바닥 표식을 따라가며 나의 고정 관념 지수를 테스트 해 봅시다. 테스트가 끝난 후, 없애고 싶은 고정 관념을 다트로 멋지게 터뜨려 버립시다.

이야기 둘. 생활 속 정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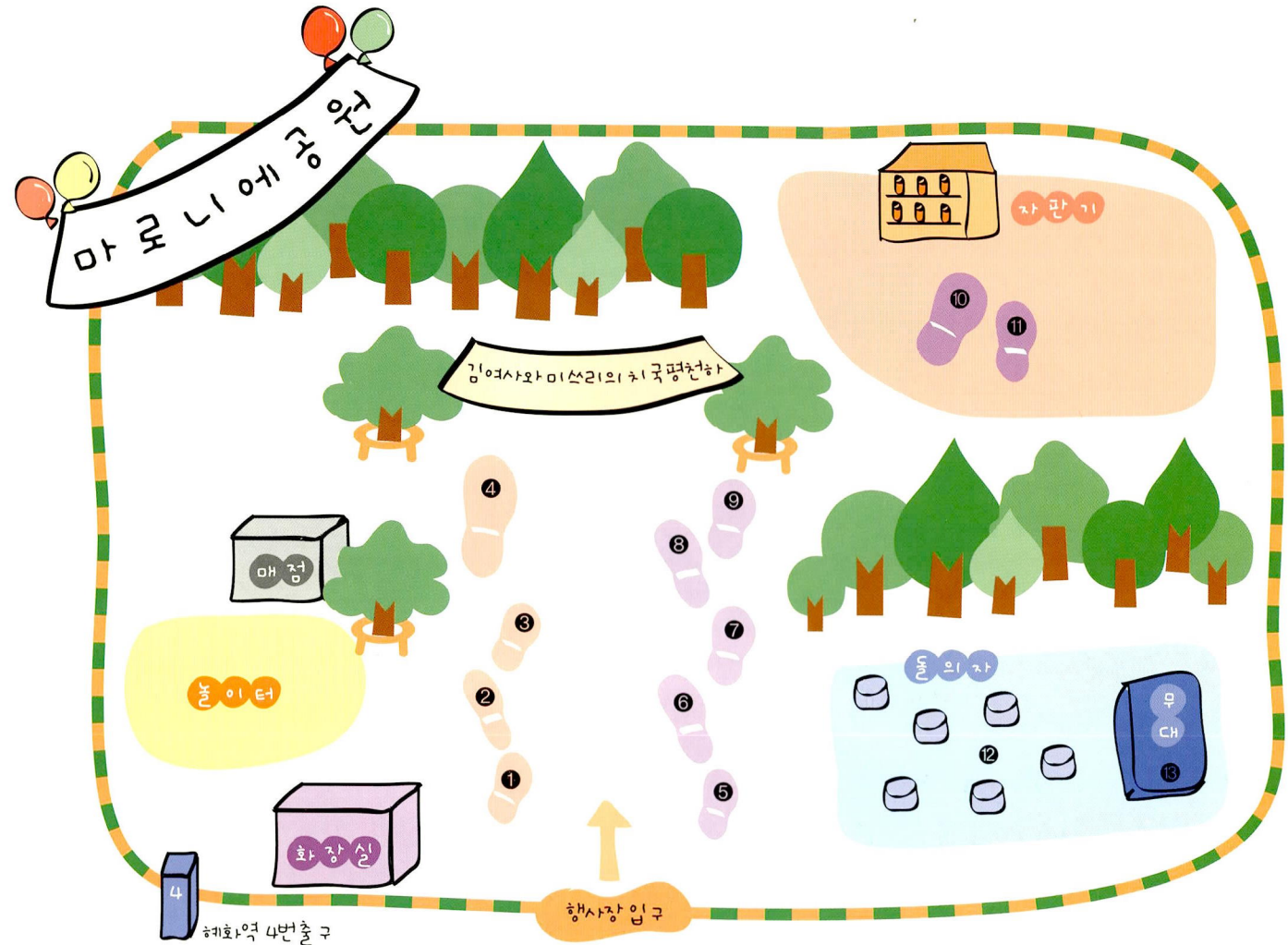
알게 모르게 여성들이 바꾼 우리 생활 속 이야기 무엇이 있을까. 마을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의정활동에서 새로운 삶을

만든 사례를 보고, 우리 동네에서 바꾸고 싶은 곳을 찾아 봅시다. 그리고 서울 시장에게 엽서도 보냅니다.

이야기 셋. 현실에서 만나는 역사 속 여성 정치 인물

여성들의 정치 활동은 예부터 있어 왔으니, 그 지혜의 전통을 찾아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봅시다. 2009년 현실 속의 여성들이 재현하는 원시부족장, 선덕여왕, 강주룡, 촛불 소녀. 그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했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지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행사장 안내



- ① 페이스페인팅 ② 비즈공예 ③ 면생리대 만들기 ④ 우리텃밭 직거래장터 ⑤ Yes or No? 테스트 -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
- ⑥ 풍선터트리기 - 내 안의 고정관념을 쫓아! ⑦ 여성의 목소리로 바뀌온 세상; 개선사례 전시 ⑧ 우리가 만드는 女行! ; 서울지도 만들기 ⑨ 서울시장에게 엽서쓰기 ⑩ 역사 속 여성정치 인물 코스프레 & 전시 ⑪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건립기금 마련 부스
- ⑫ 만담의 광장 - 여성 정치인과의 대화 ; 이수정 서울시의원, 천만상상 아크로폴리스 자유발언대 ⑬ 공연난장

한국여성민우회

치국
평정하



1. 최초의 여성 –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의 여부족장

원시 인류 하면 사냥을 하기 위한 도구를 들고 있는 남성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사냥은 불규칙적이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된 경제 활동은 여성이 담당했던 수렵과 채집였다. 더불어 자신의 혈육을 확인하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므로 부계보다는 '모계'를 중심으로 부족이 형성되었다. 여성들은 신성한 의식을 주도하였고 부족의 생존과 관련된 신비로운 비밀에 관여했다.



2. 모계혈통 사회에서 이어지는 여성의 권력 –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지혜를 겸비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끊임없는 외부 세력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불교 문화를 꽃피웠으며 청성대 건립으로 농민들에게 천문학적 지식을 전달하였다. 또 구휼사업에 직접 뛰어들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적절한 인재 등용으로 기반을 쌓았다. 그러나 여성 왕이라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업적이 비하되기도 하였다.



3. 인간의 권리에 여성의 권리가 빠졌다 – 여성의 인권 주창한 드 구즈

1789년, 프랑스 혁명 중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보편적 인권과 국민 주권을 사회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근대 정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무산자와 여성을 제외한 (유산자) 남성만을 의미했다. 이에 반박하여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구즈는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나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4. 을밀대로 올라간 고구공장 큰 아기 – 강주룡

세계공황이라는 파도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에까지 밀려왔다. 자본가들은 공황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노동자들을 자르고,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을 늘이고, 노동강도를 높였다. 고구신발공장 노동자 강주룡은 파업과 단식 투쟁이 계속되어도 해결되지 않자 광목을 한 필 사가지고 을밀대에 올라 단식과 고공농성을 하게 된다. 을밀대 위에서 빼앗긴 나라의 노동자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이 곳 노동자들이 이렇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각오를 외쳤다.



5. 케테 콜비츠

두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를 두 세계대전에서 잃고, '여성으로서 전쟁을 겪었고 어머니의 본능으로 반전예술에 임'했다. 빈곤과 병마와 죽음의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자각하게 했고, 그리하여 직조공들로 하여금 행진

하게 하고 봉기하게 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간결하고도 강렬한 선의 판화를 제작하였다.



6.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 나혜석

여자도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온몸으로 살아간 화가이며 민족주의자이고 여성해방론자. 자신이 내딛는 한 걸음의 진보가 조선 여성의 진보가 될 것이라는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졌고,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관념의 억압성을 드러내는 글을 썼다. 관습에 도전한 나혜석을 향한 조선사회의 냉대 속에서 병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쓸쓸한 생활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7.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한 장애인의 삶 – 헬렌 켈러

생후 19개월 장님, 귀머거리, 병어리가 되었으나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과 자신의 강한 의지로 장애를 극복한 사람. 그러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녀의 20살 이후의 이야기. 그녀는 29세에 사회당에 입당했으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반전 운동에 참여했다. 미국 당국은 그녀의 정치적 발언을 원하지 않았다. 88세 사망할 때 까지 장애인 복지 사업과 함께 미국사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헬렌 켈러의 삶은 FBI의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8.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 일본군 위안부

일제 시대 일본군 '위안부'– 소위 정신대의 존재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1992년 고 김학순 씨의 첫 증언을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 동안 '더럽혀진 몸', '민족의 치욕'으로 천대받던 '피해자'에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15년째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진행되는 '수요시위'는 끊임없이 책임자 처벌,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9. 촛불소녀

2008년 '촛불'은 더 이상 '정치'가 특정 기득권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특히 촛불집회를 시작한 십대 여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세뇌되어서 나왔다'는 보수언론들의 상상과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적 요구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 회복, 국민 주권과 권리 회복의 문제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I'm 저희는 성신여대 댄스동아리 아이입니다. 아이이란 각자의 개성체들이 모여 무대 위에서 각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하나가 되어 빛을 발하자는 의미가 있고 무대위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도 각자의 개성대로 빛을 발하고자 하는 동아리입니다. ^^

CatsPot CatsPot은 [cat + flower pot] '고양이 화분'입니다. 세상의 마이너들에게 편안하고 위안이 되는 음악을 하고싶은 4인조 여성 밴드입니다. 이번 서울여성문화축제 공연은 보컬 콩, 베이스 물코, 드럼 월과 세션 기타 이승효(객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We-Band 밴드 결성 1개월, 본격적인 연습 시작 2주차. 이것이 우리 '위-밴드(혹은 We-Band)'를 소개하는 짧은 경력입니다. 멤버들은 전부 "서울노동광장"의 회원들입니다. 대학 때부터 밴드 결성에 관심이 많았던 정 모 오빠(베이스)가 밴드 멤버를 모으기 시작해서, 십 수년간 피아노 근처에도 안간 저(신디)와 이제 막 스틱을 잡기 시작한 언니, 이렇게 세 명에서 '잘해보자!' 하고 의기투합 했습니다. 우리 밴드의 첫 공연, 서울여성문화축제! 너무너무 설레인답니다!!

백장미 민주노동당 용산4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60대이상의 여성들이 모여 만든 율동팀입니다. 작년 11월 처음으로 '백장미'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했구요, 춤추기가 약간 힘든 나이이기도 하지만 서울여성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A-Hopper 에이 하퍼 직장인취미밴드가 시초였지만 음반제작, 클럽공연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클럽 "음악지기"에 속해 있고요, 7월 11일 홍대 SPOT에서 (4시부터) 음악지기 소속 밴드들의 연합공연을 준비중입니다. 여성문화축제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 때 만남용~



Chanson Troubadours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중앙동아리 "Chanson Troubadours"입니다. 샹송이라고 하면 70~80년대의 고전샹송만을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곡은 고전샹송이 아닌 최근 인기가 많은 Patrick Fiori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공연이었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은 음율(보컬/기타)과 오동(기타)으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기쁨과 슬픔, 낮과 밤,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현재 모던록 클럽 빵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마대금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국악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 2005년 네이버 카페로 시작해 대금을 매개로 음악활동을 하는 동호회입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음악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으며,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 악기를 배우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Mad Fret 매드프렛 여성 5인조 하드코어/사이키델릭/뉴메틀 밴드 'Mad Fret' 1996년에 '시스크'란 이름의 여성 3인조 밴드로 첫 결성되었고, 이후 2006년에 재결성된 뒤 앨범 발매 및 단독공연을 성황리에 마친다. 일본, 대만에서도 활동하며 밴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올 11월 25일, 사이키델릭하면서도 여러가지 음악적 요소를 수용한 다채로운 연모가 부각된 대망의 첫 정규 앨범 'Smash the Lie'를 발매한다.

The M:un 더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면적인 록음악을 추구하는 정통 Rock Band. 한국 Rock음악의 새로운 이정표적 사운드를 정립하고자 하며, 한국의 'Led Zeppelin'을 꿈꾼다. 현재 2집 앨범 작업중.

